

저편 안 페어 - 출품된 이름난 실들

◎ 시키보 - 방적 기술의 정수인 특수 방적 정방 교연사 전시

시키보는, 전략 소재(戰略 素材)인 ‘듀얼 액션(Dual Action)’의 기초 기술인 특수 방적 정방 교연사(特殊 紡績 精紡 交撚絲) ‘e.m.y’로 잔털이 적고, 좋은 촉감 등으로 방적 기술의 정수를 보였다. 또한 무라타 기계(村田 機械)의 혁신 공기 정방기(革新 空氣 精紡機)인 볼텍스(Voltex)를 활용한 ‘STS’는 세(細)번수화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슬립(slub)사 ‘멜 파 이브’는 95번수까지 가능하다. ‘세번수 슬립(slub)’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 신나이가이멘 - 이색 연사(異色 撚絲)로 꾸준한 인기 끌어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의 장기로 되어 있는 이색 연사(異色 撚絲 : 모쿠이도 grandrelle yarn)의 인기가 꾸준하다. 수요가 안정되어 있다는 정번 60가지 색, 시즌 제품(season 製品) 20가지 색을 담은 견본철(book)을 전시하였는데, 전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견본철도 발표하였다.

‘모쿠티 오가닉 브랜드(Mokuty organic brand)’나 정방 교연 목얀(精紡 交撚 mock yarn)이나 낙면(落綿 : 未利用綿)을 사용한 모쿠티사 외에도 텐셀 100%의 컬러 넵사(color nep 絲)도 전시되었다.

◎ 다쓰다 방적 - 흡습 발열 · 보온 소재가 호평 받아

다쓰다 방적은 마이크로 아크릴(micro acril)과 바이로프트 레이온(bi-loft rayon) 혼방의 ‘소프트 워름(soft-warm)’, 아크릴과 면의 혼방인 ‘피치카 넵’, 큐프라(cupra)와 면의 혼방인 ‘큐프라 소프트’ 등의 흡습 발열 · 보온 소재가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실적이 있는 소재로서 안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촉감도 좋다는 등이 수요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도 계속 중점 제안하였다.

◎ 아사히 방적 - 태번수 정방 교연사를 새로 발표

아사히(旭) 방적은 새로운 소재로서 ‘태번수 정방 교연사(太番手 精紡 交撚絲 : LSD)’를

새로 발표하였다. 톱(top) 염색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며, 폴리에스터와 면의 혼방(混紡)이나 레이온과 면의 혼방(混紡)에서 두 섬유 중 하나만 염색하여 목(mock)같은 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20번수부터 태번수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태번수의 정방 교연사는 별로 많지 않다. 장래에는 콤팩트(compact)화도 검토하고 있다.

◎ 유니티카 텍스타일 - 오가닉 코튼 등 천연 유래 섬유를 중점 제안

유니티카 텍스타일은 오가닉 코튼의 ‘네이처 코트’ 및 리오셀(Lyocell) 섬유의 ‘실프’, 죽(竹) 섬유, 나포마(羅布麻) 등의, 천연에서 유래된 섬유를 중점으로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키와(常盤) 공장을 QR(quick response : 빠른 응답) 대응형으로 정비하고, 최소 1 고리의 주문도 받아, 2주 내에 납품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한 것을 고객들에게 널리 알렸다.

◎ 도요보시 공업 - 캐시미어의 시즌 넓히려고 노력

처음으로 출품한 도요보시 공업(東洋紡絲 工業)은 캐시미어(cashmere)·마(麻) 교직, 캐시미어·면 교직을 제안하여 캐시미어의 시즌(season : 盛需期)을 넓히려고 힘쓰고 있다. 또한 캐시미어의 잔사(殘絲)나 미이용 섬유(未利用 纖維 : 落綿)와 오가닉 코튼을 혼방한 리사이클 캐시미어(recycle cashmere)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면방(綿紡), 소모방(梳毛紡), 방모방(紡毛紡)의 3가지 방식으로 방직하고 있다.♣